

[서식 예] 상고장(법령위반)

상 고 장

사 건 20○○노 ○○○○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
피 고 인 ○ ○ ○

위 사건에 관하여 ○○법원에서 20○○. ○. ○. 피고인에게 징역 ○년 ○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에 모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 합니다.

상 고 이 유

1.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,

원심판결에서는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
(가) 원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인 □□□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취지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으나, 증인 □□□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고,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는 진술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등이 참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

(나) 그런데 증인 □□□은 20○○. ○. ○. 밤에 피고인이 사람을 죽였고 그때 사용한 것이라면서 칼을 꺼내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, 그 진술 중 사람을 칼로 죽였다는 진술부분은 원진술자가 피고인이고 증인 □□□은 피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,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그 당시 피고인이 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은 증인 □□□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바이며, 피고인이 설사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사실을 처음 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전문진술은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

신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
있는 상태에서 위 전문진술만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전문
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.

(다) 그리고 원심에서 인용한 다른 증거를 보면, 압수조서, 압수물 등을 들고 있
으나, 압수조서나 압수물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모두
간접증거일 뿐이어서 증인 □□□의 전문진술 외에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
는 것이고, 위 전문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, 피고인에 대
한 공소사실은 전혀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 없이 사
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.

20○○. ○. ○.

피 고 인 ○ ○ ○ (인)

제 출 기 관	원심법원{아래(1)참조} (형사소송법 375조)	제 출 기 간	7일 (형사소송법 374조)
상 소 권 자	※ 아래(2)참조	관 할	대 법 원(형사소송법 371조)
제 출 부 수	상고장 1부	관 련 법 규	형사소송법 371~401조
상고이유서 및답변서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(형사소송법 379조1항) · 상고이유서의 부분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동조 4항) 		
상 고 사 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.법률.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.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.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.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		
불 복 절 차 및 기 간	(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즉시항고(형사소송법 376조) · 3일(형사소송법 405조) 		

※ (1) 제출기관(형사소송법 344조)

1.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
2.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

※ (2) 상소권자(형사소송법 338, 340, 341조)

1. 검사
2. 피고인, 피고인의 법정대리인
3. 피고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단,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